

‘제2의 윤석민’ 나타났다… ‘고졸 루키’ 이호민 화려한 데뷔



KIA 타이거즈의 ‘신인’ 이호민이 KT 위즈 강타선을 상대로 눈길 끄는 데뷔전을 치르면서 ‘투수 왕조’ 재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T전 10-3 앞선 9회초 등판…공 7개 던지며 마무리
2025 신인드래프트 2R 지명…변화구·제구 등 탁월
“윤석민 같은 팔색조 면모와 경기 운영 하고 싶어요”

KIA 타이거즈의 ‘루키’ 이호민이 박수를 받으며 프로 도전을 시작했다.

강진 출신의 이호민은 KIA가 2025신인드래프트에서 김태형에 이어 2라운드에서 호명한 기대주다. 정우주와 함께 지난해 전주고의 3관왕을 이끈 주역이기도 한 그는 변화구, 제구, 경기 운영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KIA의 선택을 받았다.

KIA는 즉시전력감으로 이호민을 낙점했지만 어깨 관리를 위해 천천히 완벽하게 프로데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마무리캠프와 스프링캠프 명단에도 이름을 제외했던 KIA는 5월 6일 롯데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이호민의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17일 KT 위즈와의 홈경기를 통해 이호민을 처음 1군 마운드에 올렸다.

8-3으로 앞선 8회말 2사 만루에서 전주고 ‘대선배’ 최형우가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면서 10-3으로 점수를 벌였고, 낙담한 점수차에서 신인의 데뷔전이 펼쳐질 수 있게 됐다.

이호민의 첫 상대는 안현민이었다. 무시무시한 화력으로 리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강력한 ‘신인왕 후보’ 안현민과의 맞대결.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은 안현민은 2구째

볼을 던진 뒤 3구째 안타를 허용했다. 2루수와 중견수, 우익수가 달려들었지만 그 사이에 폭 떨어진 안타였다.

하지만 이호민은 흔들리지 않고 이정훈을 2구째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했고, 로하스는 4구째 삼진이 었다. 예리하게 떨어진 체인지업에 로하스의 방망이가 속절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FA 허경민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자신의 프로 첫 경기를 깔끔하게 막아냈다.

정재훈 투수코치 입에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씩씩한 막내의 피칭이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대담한 플레이였지만 이호민에게는 심장 떨리는 시간들이었다.

경기가 끝난 뒤 이호민은 첫 상대 안현민과의 승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안현민 선수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라고 답해 사람들을 웃게 했다.

상대 타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작된 이호민의 데뷔전이었다.

이호민은 “KT가 따라올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었다. 나날 준비는 하고 있었다”며 “초구는 스트라이크는 넣어야지 했는데 잘 들어가서 기분 좋았다. 타순 신경 안 쓰고 가운데만 보고 던졌다”고 말했다.

이날 이호민의 최고 강점을 보여준 장면은 로하스와 승부였다.

초구에 커브를 던져 스트라이크를 잡은 이호민은 4구째 체인지업으로 헛스윙 삼진을 잡았다.

이호민은 “로하스와 승부는 기억이 난다. 타석에 들어오는 데 이만한 타자가 들어왔다. 초구 커브로 스트라이크 잘 잡았다. 체인지업으로 삼진 잡아 보려고 했는데 커트가 됐다. 이어서 다시 몸 쪽으로 체인지업을 던져서 삼진을 잡았다. 외국인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서 좋았다”고 웃었다.

이날 데뷔전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포수 한준수도 “잘 던졌다. 체인지업이 좋았다”고 인정한 특급 체인지업이었다.

이호민은 “콜업 받았을 때 날아갈 것 같았다. 심장이 뻘뻘 뛰고 좋았었다. 볼펜에서 치를 타고 나올 때도 많이 떨렸는데 팬들의 응원 소리에 떨리는 게 가라앉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체인지업이 가장 좋았다. 커브도 좋았는데 마운드에서 하이파이브도 처음이라서 좋았다”며 “1군 훈련에 대한 것은 적응을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던지고 훈련하고 생활하면 잘될 것 같다. (김)태형이가 먼저 1군 와 있었는데 (회순)중학교 같이 다니고 했으니 재미있게 1군에서 오래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툴모텔인 윤석민 같은 팔색조의 면모와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이호민의 목표다.

이호민은 “사람들이 윤석민 선배 같은 투수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더 배우고 닮아가면 좋겠다.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크게 될 선수다” KIA 마운드 ‘웃음꽃’

이호민 성공적 데뷔전에 정재훈 코치 ‘함박웃음’
‘6이닝 2실점’ 김도현도 득점 지원에 ‘시즌 3승’

KIA 타이거즈 마운드에 웃음꽃이 피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7일 KT 위즈와의 시즌 10차전에서 10-3 대승을 거뒀다.

승운이 안 따르던 선발 김도현이 모처럼 타선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즌 3승을 거뒀고, ‘고졸 루키’ 이호민은 기다렸던 데뷔전을 치르면서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도현은 5일 두산전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에도 승리투수가 되지 못하는 등 유독 승운이 따르지 않았었다. 앞선 KT전 두 경기에서도 6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의 패전투수가 됐었다. 두 경기에서 KIA 타자들이 뽑아낸 점수는 단 1점.

이날은 김도현이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다. 6개의 안타를 내줬고 4개의 볼넷과 몸에 맞는 볼도 하나 기록했다. 베이스에 주자들을 가득 채우기도 했지만 결과는 6이닝 2실점이었다. 이 중 1점은 2루수 포구 실책이 빌미가 된 비자책점이다.

“자멸할 뻔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별로였다. 공을 던지는 건지 나를 던지는 건지 몰랐다”

며 웃은 김도현은 “많이 안 좋기는 했는데 초반에 창진 선배나 호령이 형이 도와준 덕분에 긴 이닝을 끌고 갈 수 있었다. 6이닝을 던졌다는 게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점수 차가 벌어지면서 기분 좋은 상황에서 루키의 데뷔전도 전개될 수 있었다.

10-3으로 앞선 9회초 성영탁-최지민에 이어 ‘고졸 루키’ 이호민이 볼펜을 물려받았다.

전주고 출신의 이호민은 변화구와 제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유망주. 즉시 전력감으로 KIA가 기대했던 자원이지만 어깨 부상 관리를 위해 차분하게 준비했던 선수다.

이호민은 첫 상대 안현민에게 빔맞은 우중간 안타는 허용했지만 이정훈을 중견수 플라이, 로하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허경민은 좌익수 플라이로 잡고 기다렸던 프로 데뷔전을 끝냈다.

정재훈 투수 코치는 “지난 경기에 개수가 많았고 회복이 확실히 된 것 같지는 않았다. 항상 좋

은 컨디션으로 던질 수 있는데 이런 컨디션에도 5, 6이닝 끌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계선발로 갖춰야 할 능력인데 믿음직한 선발이 되어가는 것 같다”며 “노력 뒤에 달콤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타자들이 화끈하게 점수 내줬다. 좋은 상황이 계속 펼쳐질 것이라고 느꼈을 것이다”고 김도현의 승리를 기뻐했다.

데뷔전을 치른 이호민에 대해서는 “대견하다. 진짜 대견하다. 고졸 첫 경기인데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원래 하던 것 다 하면서 했다. 크게 될 선수다. 대단하다”고 찬사를 보냈다.

또 정재훈 코치는 “1군에 바로 올라와서 가지고 있는 것 다 쓰고, 어려움을 겪으면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 2군에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피지컬적인 것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와서 하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생긴다. (김)태형이나 호민이나 ‘좋은 경험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물론 잘 던지고 성과도 나면 좋겠지만 지금 뭔가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경험도 쌓고 팀의 주축이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데뷔전에서 좋은 경험한 것 같다. 본인이 판을 잘 깔았다”고 평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고우석 ‘메이저 꿈’ 좌절…마이너서 방출

LG “연락 기다리겠다”

오른손 볼펜 투수 고우석(26·사진)이 미국프로 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방출당했다.

지난해 미국에 진출해 아직 박리그 마운드에 서지 못한 고우석은 미국 잔류와 KBO리그 LG 트윈스 복귀의 갈림길에 섰다.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잭슨빌 점보슈립프는 18일 “오른손 투수 고우석을 방출했다”고 발표했다.

고우석은 미국에서는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KBO리그에서는 2024년 2월 임의해지 신분으로 공시됐다.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되면 1년 동안 KBO리그에서 뛸 수 없다.

고우석이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된 후 1년이 지나, KBO리그에서 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LG와 계약해야 한다.

LG 마무리 투수였던 고우석은 2024년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 진출을 노렸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2년 보장 450만달러, 2+1년 최대 940만달러에 계약했다.

하지만 2024시즌 개막 엔트리에 들지 못했고 그

해 5월에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됐다.

이후 고우석은 방출 대기, 마이너리그 계약 이관 등 고초를 겪었다.

올해에는 조정 선수 신분으로 MLB 스프링캠프에 합류했지만, 훈련 중 오른손 검지 골절상으로 개막 엔트리 합류 경쟁조차 하지 못했다.

5월부터 실전에 나선 고우석은 루키리그부터 트리플A까지 빠르게 올라왔다.

트리플A에서는 5경기 5.2이닝 6피안타 1실점(평균자책점 1.59)으로 호투했다.

16일 로체스터 레드윙스(워싱턴 내셔널스 산하)전에는 선발 등판, 2이닝을 1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막았다. 최고 구속은 시속 151km였다.

하지만 마이애미와 산하 마이너리그 구단은 고우석을 ‘전력 외’로 판단했다.

고우석의 마이너리그 성적은 2시즌 56경기 4승 4패, 3세이브, 5홀드, 평균자책점 5.99다.

LG는 고우석의 연락을 기다린다.

2017년 한국프로야구 LG 트윈스에 1차 지명돼 프로 생활을 시작한 고우석은 2023년까지 354경기에 등판해 19승 26패, 139세이브, 6홀드, 평균자책점 3.18을 올렸다.

2022년에는 42세이브로 KBO리그 구원왕에 올랐다.



차명석 LG 단장은 “고우석이 미국에서 성공하길 바랐다. 고우석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다. 고우석 측의 연락을 기다리겠다”며 “고우석이 LG 복귀를 결정하면, 우리 팀에는 큰 도움이 된다. 셀러리캡(연봉총액상한) 문제도 협상으로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